

보육교사의 교권침해 경험과 개선방안 탐색*

최예린**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교권침해 경험의 의미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1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Creswell과 Poth(2018/2021)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보육교사들의 교권침해 주체는 크게 학부모와 원장, 동료 교사, 언론으로 구분되었다. 학부모가 주체가 되었을 때 보육교사는 신고 협박에 대한 두려움, 폭언과 고성으로부터 자존감 하락, 쉼 없는 업무로 인한 피로감, 부당한 요구와 개입에 따른 불편함, 무시당함에서 오는 모욕감을 경험했다. 또한, 보육교사는 원장의 요구와 방관, 부당한 처우, 동료의 지시와 협박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경험을 했다. 둘째, 보육교사가 제시한 교권침해 개선방안은 교권 존중에 대한 부모교육, 보호장치 마련, 가이드라인과 법 개정,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도적 법적 대응 마련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모교육, 어린이집 조직 내 풍토 개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때 교사 권리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보육교사, 교권, 교권침해, 개선방안

논문 투고일: 2024. 1. 26. 최종심사일: 2024. 2. 23. 게재확정일: 2024. 3. 22.

* 이 논문은 2023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Choi, Yelin, Room 617, Namseoul University Children Welfare Center, 91, Daehak-ro, Seonghwan-eup, Cheonan-si 31020. E-mail: kidworld@nsu.ac.kr

I. 서론

현대 사회는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사의 인권과 권리는 추락하였고, 부모는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요구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2023년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폭행과 초등학교 사망 사건은 교권 부재에 대한 우려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함에 따라 사회와 교육계는 교권을 사회 구조적 문제, 사회 담론으로 제기하였다. 교권이란 넓은 의미로서 ‘교육권’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서는 ‘교원의 권위·권리·지위’라고 할 수 있다(김태완·이윤지·김병주, 2004).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정효정, 2021). 교권침해는 이러한 권리 및 권위가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고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조용선, 2018). 법이나 제도로 규정된 교사의 교육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회적·윤리적으로 부여된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 및 인간으로서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행정가,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의 침해를 의미한다(김민규·이상신·엄문영, 2016).

교권침해 현상은 유아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 연구(조준오, 2022)에 따르면 유아 교사들은 교육 활동에 대한 교권침해, 사생활 침해, 학부모 연대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학부모와의 갈등, 어떤 사건에 대한 무죄나 무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모들은 관찰청에 민원 제기, SNS를 통해 무분별 집단 공격을 함으로써 해당 교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경우가 있다(정효정, 2021). 유아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경우 학부모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영·박한숙, 2018). 보육교사 교권침해의 경우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권 침해, 불합리한 이유로 간섭받은 경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서 간섭받은 경험, 욕설이나 폭언 경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해 책임진 경험, 고소, 처벌 등 위협하는 말로 협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현·박미경·최양미·이홍재, 2020). 최근 보육 교직원도 잇따른 자살 사건이 있었고, 이는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삶의 위기나 직업윤리를 뒤흔들고 있다(이민희, 2022).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권리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권리침해 주체가 부모(71.9%)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불안, 우울, 분노, 수치, 강박, 적대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질환을

않기도 한다(조준오, 2022). 정부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를 마련하였으나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후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고 고시했다(교육부, 2023). 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대처 또는 예방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혜민, 2023).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3년 10월 16일에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대응 가이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유형과 관련된 법령제시, 대응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의 경우 그 해석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악성 민원에 대한 지침, 학부모에 대한 교육, 교사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실제 보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으로부터 교사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 근원적인 쟁점, 나아가 현실 맥락 속에서 개선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권침해 선행연구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미영·박한숙, 2018; 조준오, 2022; 황연옥·이혜경, 2020),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보육교사 발달단계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및 대응요구 분석(김보현 외, 2020)이 있으나, 이 연구는 양적 연구이다. 정효정(2021)의 연구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을 고찰하고 법적·사회적·제도적으로 보호에 관한 제언을 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와 그에 대한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근무 여건이 다른데, 2021년 전국어린이집 보육실태조사에서 평일 운영시간은 평균 12시간 1분으로 2015년과 2018년 조사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80명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토요 보육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 2003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는 계속되었다(권순임·구수연, 2020). 이처럼 유치원 교사와 다른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있으므로 양적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점을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참여자로 하여 교권침해 경험과 이에 근거한 대응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을 때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 발생 되는 부정적 감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뿐 아니라 원장, 동료 교사, 언론 등 교권침해 실태와 현상을 살펴보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어린이집 조직 내 대책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보육교사의 교권침해

예방과 교사 권리 보호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교권침해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보육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1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 면담을 했다. 연구자들은 주제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 경험, 태도를 가지며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한다(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따라서 보육교사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사 발달단계에 따르면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안정 단계로서, 적응기 이후 교수 수행 단계이다. 보육교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기이므로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두로 연구 참여와 면담 시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교사에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참여자를 유추할 수 있는 연령, 거주지 등은 제외했고, 어린이집 유형과 경력만 제시한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배경

순서	참여자	근무 경력	유형	순서	참여자	근무 경력	유형
1	A교사	14년	국공립	8	H교사	4년	직장
2	B교사	6년	국공립	9	I교사	6년	가정
3	C교사	10년	직장	10	J교사	10년	직장
4	D교사	11년	법인	11	K교사	15년	국공립
5	E교사	11년	법인	12	L교사	6년	국공립
6	F교사	3년	직장	13	M교사	4년	민간
7	G교사	7년	직장				

2. 자료수집

보육교사 교권침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선택했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8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면담(대면, 전화)이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참여자들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조율했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다. 면담은 1~2회씩 진행되었고, 시간은 대략 15분~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Seidman, 2019/2022). 면담은 진행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김보현 외, 2020; 박미영·박한숙, 2018)를 참고하여 교권침해 주체, 교권침해 경험 유형, 해결 과정, 지원 방안 그리고 최근 초등학교 교권침해 관련하여 대응 마련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기보다 질문지에 없으나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된 질문을 하면서 반구조화된 면담 형태를 사용했다. 반구조화된 면담유형은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연결된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화된 질문 예는 교권침해 주체는 누구였나요? 교권침해 원인은 무엇인가요? 교권침해 유형은 무엇인가요? 교권침해 후 대처는 어땠나요? 이고, 반구조화된 질문의 예는 협박받은 기억을 떠올리면 어떤가요? 계속되는 연락을 받을 때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등이다. 교권침해 대응과 관련해서 참여자들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정리된 내용을 서면으로 받는 등 그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면담 외에 문서, 뉴스 보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당시 한국 사회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어서 뉴스와 신문에서 관련 사례가 보도되었다. 다양한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읽으며 연구자 주관적 판단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3. 자료분석

사례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깊이 있게 조사하는 연구이며, “왜”와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초점을 두는 것이다(Yin, 2018/2021). 이 연구는 교권침해라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례이며, 교권침해가 “왜”, “어떻게” 발생하고, 이 사안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와 Poth(2018/2021)가 정리한 사례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파일에 정리하였고, 파일명에 날짜와 교사명을 만들었다.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한글 문서로 변환하였고, 면담이 끝난 직후 읽음으로써 오류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자료를 조직화 후 전체 텍스트를 정독하며, 의미 있는 단어에 밑줄 긋기를 하거나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했다. 즉 아이디어를 짧은 단어로 쓰면서 초기 코드를 생성했다. 셋째, 각 사례와 그 맥락을 간단하게 기술했다. 이는 확장된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코드에 기술한 것이라 하겠다(예: 업무 연장→쉽 없는 업무 연장→쉽 없는 업무 연장으로 인한 피로감). 넷째, 주제나 패턴 형성을 위해 유사한 의미의 내용을 모아 범주화하며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제 간에 배열, 재배열, 연합하며 상위범주로 묶었다. 연구 초 ‘쉽 없는 업무’는 부당 간섭에 포함했으나 교사들이 핸드폰과 키즈노트에 관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다수 교사가 경험한다고 판단하여 따로 범주화했다. 마지막으로 해석에 초점을 두며 참여자가 말한 단어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봤고, 전체 맥락에서 단어가 주는 의미를 다시 재조명하는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1. 보육교사가 경험한 교권침해

보육교사들이 교권침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 원인, 행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선행연구(김보현 외, 2020)에서는 보육교사 교권침해 주체를 학부모, 원장, 동료 교사, 행정기

관, 언론으로 구분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행정기관에 관한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이를 제외했다.

1)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 신고 협박에 따른 두려움

교권침해 주체인 학부모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라는 것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했다.

저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적도 있어요. 조사도 받고 그런 사례들이 저도 있고 제 동료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아이가 혼자 넘어졌는데, 업무 태만 이런 식으로 방관했다(중략).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신고당했다는 게 남아있어서 그 이후로 아이들을 보는 게 무서워요. (2023. 9. 2. A교사)

신고하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시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좀 괴롭고, 엄청 그래요. 계속 봐야 되잖아요. (2023. 9. 4. B교사)

부모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지금 비슷한 악성 민원 그러니까 약간“저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2023. 9. 2. C교사)

신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사회적 기능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 다만 학부모가 신고라는 것을 통해 교사를 자신이 원하는 의지대로 조종하는 수단이 된다면, 신고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힘이 될 것이다. 위 제보에 따르면 학부모는 교사를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이야기로부터 교사는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A교사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라고 제보했고, 그 사건 이후 아이들을 보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B교사 또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괴롭다고 한다. 교권침해 이후 교사들은 교육 활동은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모했으며, 일부는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현상을 경험한다(김도기·이정표·권순형·김제현·김세영, 2020). 학부모의 민원과 스스로 결백하다는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는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라는 학부모의 “힘”은

상당히 지배적이며, 실제로 교사는 고발이 되어 수사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신고라는 위협 속에서 심리적 소진과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학부모의 잦은 민원과 신고 과정에서 교사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고하겠다는 협박은 과거이지만 교사는 학부모의 협박을 받았을 때 시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현재에도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2) 폭언과 고성으로부터 자존감 하락

학부모들로부터 폭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 불만을 가진 학부모는 고성과 폭언을 하며 교사를 위협했다.

아버지가 오셔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여기가 군대나 원장 나와 담임 나와 막 큰소리로 현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뭘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저래라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욕설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소리와 위협적인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고요(중략).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좀 괴로워요. (2023. 9. 4. B교사)

소리 지르시고 현관문에서 아이랑 다 있는데 보는 앞에서 아이들 있는 데서 소리 지르세요. 샷대질하면서 막 소리 지르시기도 하고(중략)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다친 거에 있어서 화가 나서서 저 진짜 욕 들은 적도 많아요. 쌍욕도 들은 적도 많아요. (2023. 9. 2. A교사)

부모의 고향을 듣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직면하게 되고, 고향과 욕설을 듣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B교사는 기억을 떠올리며 괴롭다고 말하는데,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니라 현재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뭘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저래라해요”라는 아버지의 폭언에서 교사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고, B교사는 ‘위협’이라는 단어로부터 당시 교사가 느끼는 공포가 전해졌다. A교사는 14년 보육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폭언, 욕설 등 교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한다. A교사는 “아이랑 다 있는데 보는 앞에서”라고 말하였고, 교사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자존감은 하락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로부터 굴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결코 자녀 문제 앞에서 완전히 이성적일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

화될 수 없을 것이다.

(3) 쉼 없는 업무로 인한 피로감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교권침해 중 하나는 늦은 시간, 주말에도 올리는 휴대전화와 알람장 땀글 쓰기였다. 휴대전화는 교사-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퇴근 후에도 업무가 연장되기 때문에 교사는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초래할 것이다.

엄마가 예를 들면 전화를 자주 했어요. 밤낮없이 하셨죠. 시간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깐 불안하잖아요. 근데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혹시나 또 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또 문제가 될까. 민원이 들어오고 크게 일을 만들 것 같으니까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교사들이 전화를 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2023. 8. 31. D교사)

어떤 학부모 중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주말 없이 정말 좀 너무 자주 연락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2023. 8. 31. E교사)

늦은 밤 교사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우리 아이의 하루일과를 세밀히 전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2023. 9. 7. J교사)

교사 개인번호 오픈 시에는 근무 시간 외에 늦은 밤, 새벽 등에도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2023. 9. 6. K교사)

사례를 보면 학부모들의 전화는 시간적 제약 없다는 것이다. 참여 교사들은 ‘밤낮없이’, ‘시도 때도 없이’, ‘주말 없이’, ‘새벽’ 등 수시로 연락한다고 제보했다. 교사와 학부모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실시간·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데, 늦은 밤과 이른 아침, 주말, 휴일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오는 학부모의 연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이윤주, 김갑성, 2017). D교사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는 이유로 자신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H교사의 제보를 보면 학부모의 전화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아이 하루일과를 세밀히 전달하라는 것이다. 부모들의 자기중심적인 요구에서 교사는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느끼며, 무엇보다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키즈알림이 이렇게 딱 뜨는 순간, 그 부모 이름이 딱 뜨는 순간 이미 심장이 쿵 내려요.
(2023. 9. 2. C교사)

키즈 노트 알림장이라는 핸드폰 알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내면 댓글을 또 달아야 해요.
어머님들이 10시에 달면 그 이후에 또 달아야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2023. 9. 12. D교사)

위에서는 무분별한 학부모의 전화와 관련된 보육교사들의 교권침해 실상을 살펴보았다면, 또 다른 연락 수단인 키즈노트 또한 교사에게 업무의 부담이 되었다. 보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로 키즈노트를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알림장으로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앞서 전화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늦은 시간에도 알림이 뜨면 댓글을 달아야 하는 부담을 느꼈다. 디지털 기기가 현장에서 도입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업무 연장이 될 수 있고, 교사 개인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키즈노트에 댓글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감과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공적 시간과 사적 시간이 분리되지 않을 때 피로감과 강박증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심리적 상태에 관해 D교사는 긴장감이 항상 있다고 하고, C교사는 ‘심장이 쿵’이라고 말하며 퇴근 후 키즈노트가 주는 압박감을 묘사하였다. 교권침해 관련해서 심리적 소진, 우울, 직무 불만족, 불안, 강박증, 적대감, 분노, 수치심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심한 경우 심리적 외상 증상이 발생된다(정애경, 공윤정, 황매향, 김혜숙, 여태철, 2019). 키즈노트는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접근이 편하다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은 손쉽게 글을 쓰지만, 교사의 경우 일대 다수이므로 댓글을 다는 것은 업무 시간 연장 및 교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부당한 요구와 개입에 따른 불편함

학부모는 보육교사들에게 지나친 요구와 개입을 했는데, 이러한 부당한 간섭과 제한은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과정을 접목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이런 좋은 것들이 있대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과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2023. 9. 1. G교사)

어린이집에서 기억나는 흥미를 보이고 있으니까 놀이를 통해서 한글을 조금 접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우리 아이가 한글을 원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안 가리킬 거니까 선생님이 한글을 좀 가르쳐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2023. 10. 2. H교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영유아 중심·놀이중심으로 운영하며 교사의 자율권을 강조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한글 공부와 그 방법과 교육과정에 지나친 간섭이나 요구했다. 학교 입학 전 자녀가 한글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에게는 과업이고, 학부모에게도 숙제와 같은 것이다. 한 연구(김도기 외, 2020)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부모가 수업 방법을 권유하거나 일기 쓰기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했다. 교권 협의의 개념은 ‘교원의 교육권’ 즉 ‘가르치는 일에서의 권리’가 강조된다(김나영·홍미영, 2020). 어린이집은 초중등과 달리 교과서나 단원 중심이 아니라 놀이와 주제 중심으로 통합적 교육을 한다. 교사들은 유아의 흥미와 놀이를 통해 한글을 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그 방식이나 교육 내용을 요구하는데, 이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 즉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본인은 연차를 잘 쓰시면서 우리 애가 불편하니까 선생님은 연차를 쓰지 말라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내 애는 선생님만 좋아하고 다른 선생님은 낯가리니까 선생님 연차 안 탔으면 좋겠다. (2023. 8. 31. D교사)

위 사례에서 학부모는 교사의 사생활 영역인 연차 시기를 간섭하기도 했다.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 과도한 기대감, 공격적인 태도는 정상적인 감정노동의 대응에서 벗어나 직무 스트레스를 형성한다(신영일, 2018).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보육교사는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에 관한 제보를 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강의 재량으로 여름, 겨울 휴가를 포함하여 휴업일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교사는 대체 교사 일정에 맞춰 연차를 사용하나 부모의 협조를 통한 연차 소진 방법에 회의적이었다(김민정·이승하, 2023). 교사는 연차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으나 위 사례에서 보육교사는 연차 사용조차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른 선생님의로 바꿔주세요. 우리 담임 선생님 바꿔주세요. 원장님께 아예 이야기하는 거죠. 저 선생님이

그만두게 해주세요. (2023. 9. 2. C교사)

C교사의 이야기에서 학부모는 교사 변경과 교사 사직까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는 1년을 한 학급을 맡는 것으로 실제로 교사가 중간에 이직하면 동료 교사, 원장 그리고 영유아에게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에게 책임감이 요구된다. 학부모는 교사 변경과 그만두게 해 달라는 개입을 하는데, 고용은 한 사람의 생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권침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만, 타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하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이제 한 사람의 생명줄을 위협하며,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교사는 불쾌함을 경험할 것이다.

(5) 무시당함에서 오는 모욕감

교사(教師)라는 단어에서 ‘사’는 스승‘사’이다.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 순간순간 학부모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교사 정체성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는 뭐라고 해야되지. 사건과 관련 없이 그냥 감정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사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2023. 9. 1. G교사)

신고하셨던 부모님도 일단 신고하시기 전에 어린이집에 와서 일단 아이가 다쳤어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희들이 뭘 했는데. (2023. 9. 1. A교사)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G교사는 학부모로부터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A교사는 ‘너희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반말과 깎아내리는 말, 교사 자격에 대한 언행에서 교사는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직전 교육을 받았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매년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으며 교사 되기를 충실히 했으나 현실은 ‘교사 자격 없다’라는 말로 돌아왔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폭언은 교사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교사는 보육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품고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무시당함과 모욕감을 경험하였다.

2) 원장, 동료 교사,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1) 원장의 요구와 방관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부터 교사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경험하지만, 이때 원장의 강요와 방관은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또 어떨 때는 더 안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원장님은 솔직히 옆에 원장님이 계시지만 원장님은 참으라고 해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냥 이거 지나간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온 게 아깝지 않냐고 순간 감정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2023. 9. 2. C교사)

댓글을 또 달아야 하는 어머님들이 10시에 댓글 달면 그 이후에 또 달아야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무는 아니지만, 웬지 안 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달라고도 하세요. 원장님 댓글 좀 다세요. (2023. 8. 31. D교사)

원장이 지시하게 되면 교사들은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 지시와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따르게 된다. C교사의 제보에 따르면 원장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교사에게 참으라고 권유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감정은 배제되었다. 방관은 직접적 교권침해는 아닐 수 있으나 간접적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2023. 10. 16)은 보육 활동 침해 대응 방안 로드맵에서 원장의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로부터 계속되는 협박을 받지만, 공동체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원장·대표자·위탁업체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보육교사 경험한 권리 침해유형은 부당 지시 40.5%, 강요 31.7%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9). 또한, 원장의 댓글 달기 강조는 교사에게 자의적·타의적 업무 연장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근무환경으로서 업무량은 교사 소진에 영향(김미현·김유정, 2019)을 준다는 측면에서 원장은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부당한 처우에 대한 침묵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함이고, 근로자에게 일할 때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반대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 부당함과 불공정성을

느끼지만, 조직문화 내에서 표출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 수당이 있더라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한 달에 10만 원까지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상 일을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2023. 9. 2. F교사)

사실 직장어린이집 아니고서야 제 생각엔 아직도 국공립은 약간 열정페이를 해야 그러니까 조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게 사실 한 달간 누적이 되면 그렇죠. 여러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사의 처우나 이런 게 보장되지 않아요. 아직도 현실은 국공립도 그렇죠(중략).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또 이거 요청하느니 그냥 내가 사고 말지 할 때도 있어요. (2023. 9. 2. A교사)

공정 측면에서 근무 외 업무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201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어린이집에 적용되어 주당 40시간의 근무 시간 적용되었지만, 보육이 주 최대 40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에 속하였다(권순임·구수연, 2020). 보육 현장 특성상 하루 12시간 운영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토요일 운영 등으로 보육교사는 장시간 초과 근무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교사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요청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장은 초과근무 수당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어느 선까지 지급하거나 1~2시간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보육교사는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만큼 받는다는 비율이 57.7%, 상한선 적용 비율이 31.9%, 일괄 지급 7.7%, 기타 2.7% 순이었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

아울러 교사 개인적으로 교육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상받지 못할 때 재산권 침해유형이라 하겠다. 한 연구(김보현 외, 2020)에 따르면 재산권 침해 경험 중 보육교사들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 경비로 구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동료의 지시와 협박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에 따르면 동료 교사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은 14.6%이고, 보육교사가 경험한 권리침해 유형은 따돌림 및 차별 33.1%, 부당 지시 26.9%, 모욕 및 명예훼손 19.3%, 강요 16.6%, 폭행 및 폭언 4.1% 순이었다.

제가 아동학대를 고발했어요. 원장님한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했는데,

저희 옆 반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한테 좀 정서 학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넘어가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중략). 이 지역에서 일 못하게 해주겠다. 자기가 구청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원장님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시면서. 제가 좀 어렸을 때여서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2023. 10. 9. I교사)

초임 때 같은 반 교사는 아닌데 다른 반 선생님께서 의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적받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바깥 놀이할 때나 기저귀 갈 때 불편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 긴 치마에 나풀거리는 거였어요. (중략) 그때는 살짝 기분이 안 좋았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원하는 식으로 복장으로 입고 가든가 액세서리는 빼면 그만이라는 생각했어요. (2023. 10. 3. H교사)

I교사는 동료 교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 원장에게 이야기했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가해 교사는 I교사에게 이 지역에서 일 못 하게 한다는 협박을 듣게 되었고, 그 원을 사직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사안이고, 학대 의심이 있어서 원장에게 이야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고, 결국 교사들이 원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관리자·선배 동료 간 관계에서 I교사는 감정적으로 공포를 경험했고,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H교사의 경우 의상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긴치마를 입었음에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은 안 좋았다고 말했다.

(4) 보육교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주는 언론

언론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중에게 보도하는데,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므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교권 하락 뉴스 보도 그리고 교사에 대한 인권 부족해요. 특히 아동학대 뉴스 등으로 인한 교사의 사명감도 상실되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아졌어요. (2023. 9. 6. L교사)

학대 사건이 계속 그냥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들은 무슨 일 있으면 내 아이가 학대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경험은 아니었지만 막 얘기로는 녹음기를 켜서 가방에 넣어서 보낸다든지. (2023. 8. 31 E교사)

대중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은 쉽게 언론 매체를 접하게 된다. 최근 언론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지속해서 보도하였고, 그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극소수이지만 전체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교사들은 언론에 비친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고 말한다. 대중매체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불리하게 만들고,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 저하 원인이 된다(정은미·이무영·박주현, 2016). E교사는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는 일도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올 때 녹음기를 보내는 것은 간섭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학부모는 언론에서 아동학대를 접할 때 불안감을 느끼고, 보육교사 전체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에서 근무했을 때보다 보육교사를 더 쉽게 본 더 전문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제가 두 군데를 다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져서 그게 아닌데 부모님들이나 대중의 입장에서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매스컴 자체에서도 너무 쉽게 보육교사는 1년 과정을 해서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다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닌데 모든 기사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3. 8. 31. D교사)

D교사는 언론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쉽게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이 보육교사를 보는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언론이 대중에게 정보제공 시 어떤 측면을 강조하게 될 때 그 분야를 잘 모르는 대중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보육교사 양성은 일정 교과목만 이수하면 되는데, 그 기간도 다양하고, 대학 기관,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언론이 교사 전문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다.

2. 보육교사 교권침해 개선방안 탐색

보육교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였고, 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1) 교권 존중에 대한 부모교육

참여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의 경우 초·중·고와 달리 교권침해 주체가 학부모가 가장 많으므로 부모교육을 강조하였다.

현재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참석률이 저조해요. 어린이집 입소 또는 아동 수당 수령 조건으로 아동 및 교권에 대한 부모교육을 필수로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 9. 16. G교사)

처음부터 어린이집 시스템에 등록할 때 아이를 시스템 등록을 할 때 이게 부모교육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요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교육 이수해야 해요. (중략) 어린이집 아이 사랑 포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면 아예 그 영상을 필수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입소하려면 부모가 교육받게요. (2023. 9. 10. C교사).

교사의 자질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질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 형식적이고 선택적인 부모교육이 아닌 효과적이고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실행하여 기본 개념 인식을 갖도록 여러 대안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3. 9. 6. M교사)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모 역할수행, 올바른 자녀 양육에 초점이 맞춰있다. 위 사례에서 보육교사들은 아동의 권리와 함께 교사의 권리 내용이 담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보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위치는 영향력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민원은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출산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기에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C교사는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아이사랑카드에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부모교육을 받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 보호장치 마련

최근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됨에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생님 책임이야. 선생님 반이고 선생님이 해야되는 거야. 그래도 어린이집 내 안에서 생긴 건데, 소위 말해서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교보위 같은 게 있으니까요. (2023. 8. 31. E교사)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분쟁 해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보육교사 권리침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3. 9. 7. J교사)

전문적인 교사 인권 및 교권 보호 대응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또한 권리침해 학부모를 거부할 수 있는 대책 방법이 필요해요. (2023. 9. 6. L교사)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보호 대응팀 설치에 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오롯이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조직 풍토로부터 교사의 권익을 보호 및 증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함을 언급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교직원의 양성,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이서영, 2023).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교권침해를 통해 그동안 교사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케 한다. 참여자들은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전담 기관 설치·운영을 제기하는 것이다.

3) 대응 가이드와 법 개정

참여자들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대응 가이드, 시스템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사례 책자를 배부했으면 하고, 구청이나 시청으로 직접적인 민원을 했을 때 지도 점검이나 시정명령을 바로 하지 말고 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해요. 교권 침해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법과 규칙에 제정되었으면 해요. (2023. 9. 16. B교사)

원내 영유아의 문제행동 및 발달 지연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교사 개인이 혼자서 대처하지 않고 원 차원에서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해요. (2023. 9. 16. G교사)

시스템 같은 것이 생기면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일처

럼 뭔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든지(2023. 9. 6. A교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2023)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보호 핸드북을 제작했고, 이 책자에는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사례와 관련 법령이 쓰여있다. 다만 부당한 보육 활동 침해 사례는 있으나 구체적 대응 방법은 없고,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도움 기관을 제공한다. B교사는 법 제정, G교사는 어린이집 내에서 민원 발생 시 원 자체에서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 A교사는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시스템 필요성을 제기했다.

4) 사회적 인식 변화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몇몇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특히 이제 이름이 보육교사라는 그 명칭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아요. (2023. 9. 4. B교사)

어린이집은 수준이 낮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제가 유치원 근무할 때보다 솔직히 어린이집 교사 할 때가 더 부모님이 낮게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제가 두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다르게 보더라고요(2023. 8. 31. D교사)

인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인식 변화가 돼야지. 그 인식이 변화되려면 당연히 교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2023. 9. 2. C교사)

사회적 인식에 대해 B교사는 보육이라는 명명으로 인해 아랫사람으로 보는 인식에 관해 이야기했고, D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을 이야기했다. C교사는 보육교사에 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교사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의 교권침해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개선 마련에 관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 교권침해 주체인 학부모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 차원에서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실 붕괴라고 일컫는 교권침해는 보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며, 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권침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주었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학부모로부터 신고 협박, 폭언과 고성, 업무 연장, 부당한 요구와 개입, 무시당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었다. 보육교사 권리침해 주체를 알아본 결과 학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고, 권리침해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이 40.5%, 폭행 및 폭언이 9.4%로 나타났다(보고(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와 부분 일치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실태 속에서 보육교사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교사 존중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교사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 편이다(전희정·전유영·김주후, 2019). 한 연구(김보현 외, 2020)에 따르면 보육교사 교권침해 경험 및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보육교사 우대정책,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교권에 관한 법 규정 마련, 전문성 향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 교사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교육을 언급한(조준오·2022) 연구 결과와 결을 같이한다. C교사는 어린이집 시스템에 아이를 등록할 때 어린이집 에티켓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부모교육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사 존중 정책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는 점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

둘째, 사후 처리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장치와 대응 가이드가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학부모의 고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좀 괴로워요”라는 이야기로부터 교권침해 후유증과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의 폭력, 폭언에서 교사는 심리적 소진, 정서적 고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용선, 2018). 보육교사들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박동필·이지연, 2016).

학부모는 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스트레스, 감정적 노동, 두려움 등의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소진된 교사는 보육 활동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며, 영유아의 신체, 감정, 사회적 요구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강현경·도미향, 2023).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의 민원 후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제안한다.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는 유치원 교사와 동등하게 교육법상의 교원 지위가 확보되도록 하고 교원의 지위에 따른 교권 보호가 보장되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이서영, 2023).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사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분쟁 조정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교사가 요청할 수 있고, 제반 제안에 따라 실태 점검을 하는데, 이때 지역마다 어린이집 분쟁 조정 변호사를 둬으로써, 변호사가 실태 확인 및 분쟁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교육부(2023. 08. 23)는 공익 차원에서 엄정 대응과 같은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보호 핸드북을 제작했으나(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권리 보호를 위한 사례와 관련 법령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미비했다. 가령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낙인’ 효과로 보육교사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교권침해 주체가 원장, 동료, 언론 측면에서 논의하면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위계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뿐 아니라 원장과 동료 교사 관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본 점은 의의가 있다. C교사는 “원장님은 참으라고 해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진술하였고, I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이 지역에서 일 못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밖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보수를 정당하게 못 받는 등 재산권 침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연구(조준오, 2022)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관리자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유아 교사는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보고한다. 반면 동료 교사 간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 응원은 보육교사의 자부심, 긍지, 행복감을 높인다고 한다(김웅자, 2023). 따라서 내부적 구성원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원장은 윤리적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장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강조되는 원장의 리더십이 보육기관의 목표 달성과 운영, 보육 교직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경·이홍재, 2021). 윤리적 리더는 부하들이 규범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정직, 신뢰, 공정, 배려)을 보여서, 정당하고 신뢰받을 만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호정, 2013). 원장의 리더십은 교사의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고 심리

적 안녕감을 강화하는데 이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박경애·도미향, 2022).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3)에 따르면 보육 활동 침해 대응 방안으로 원만한 대응은 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지원 요청을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린이집 문화가 위계적 풍토가 아닌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조직 내 교권침해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권침해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교권침해 주체가 언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전문성 향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교사를 서열화·계층화하여 암묵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주거나 아동학대를 마치 전체 보육교사로 비침으로써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준다. L교사는 “아동학대 뉴스 등으로 인한 교사의 사명감도 상실되고 학부모님의 민원이 많아졌어요”, B교사는 “아랫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아요”라고 진술했다.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요인은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의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조용남·송미령, 2021). 이는 유치원 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올바른 교권 인식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연구(양다경·이연승, 2016)와 일치한다. 돌봄과 교육의 경계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교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전문성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배움의 과정에서 있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교권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법률에 대한 이해, 대응 방법을 숙지하며, 타자에 의한 존중뿐 아니라 전문성을 높임으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끝날 무렵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2023. 10. 16)은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현장에서 실효성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마련 이후 실제 보육교사 교권침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양적·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 존중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어린이집 내 어린이집 내 조직 풍토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원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현경·도미향(2023). 보육교사의 그릿과 교사 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2), 81-102.
- 교육부(2023).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 교육부보도자료. <https://www.moe.go.kr/>에서 2023년 8월 25일 인출.
- 권순임·구수연(2020).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28-252.
- 김나영·홍미영(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권침해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교사교육연구**, 59(3), 475-496.
- 김도기·이정표·권순형·김제현·김세영 (2020).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에 관한 연구: 강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499-526.
- 김미현·김유정(2019). 유아교사의 근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2), 73-96.
- 김민규·이상신·엄문영(2016). 교권침해에 관한 관례분석 연구. **교육학법학연구**, 28(3), 1-24.
- 김민정·이승하(2023).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직장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7(4), 51-78.
- 김보현·박미경·최양미·이홍재(2020). 보육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및 대응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653-674.
- 김응자(2023). 보육교사의 교직현신과 창의적 역할수행,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2), 103-124.
- 김태완·이윤지·김병주(2004).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교육법학연구**, 16(2), 27-54.
- 김호정(2013). 공공조직의 윤리적 리더십. **한국조직학회보**, 10(2), 29-58.
- 박경애·도미향(2022). 어린이집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교사-부모 파트너십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부모교육연구**, 19(2), 31-58.
- 박동필·이지연(2016).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53-70.
- 박미경·이홍재(2021). 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국정관리연구**, 16(2), 31-61.
- 박미영·박한숙(2018). 유치원 교사의 교권 및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195-218.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1. 12. 26).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보고-
<https://kicce.re.kr/main/search/index.do>.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4).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https://www.kcpi.or.kr/kcpi/cyberpr/etcpublication.do>

- 신영일(2018).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소진과 감정 노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9(1), 35-64.
- 양다경·이연승(2016).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755-776.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박영 story.
- 이민희(2022). 보육교사의 외상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5), 19-31.
- 이윤주·김갑성(2017). 학부모와의 휴대전화 의사소통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사 스트레스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25-50.
- 이서영(2023). 보육교직원(보육교사)의 권익보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련법과 자치단체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4(2), 87-113.
- 전희정·전유영·김주후(2019). 보육교사가 지각한 교권수준과 직무만족도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9-40.
- 정은미·이무영·박주현(2016). 언론에 나타난 보육교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2), 323-343.
- 정애경·공윤정·황매향·김혜숙·여태철(2019).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개입방안 탐색. **초등상담연구**, 18(2), 235-257.
- 정효정(2021).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저해 요인에 대한 논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130, 137-157.
- 정혜민(2023).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찰. **법과인권교육연구**, 16(1), 1-20.
- 조용남·송미령(2021).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실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7, 1-21.
- 조준오(2022). 유아교사의 교권침해 실태 및 개선에 대한 인식탐구. **인문사회**, 21, 2433-2448.
- 조용선(2018). 교권침해 유형별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의 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1073-1090.
- 황연옥·이혜경(2020).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 **학교교육문제연구소**, 85-113.
- Creswell, J., & Poth. C.(2021).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가지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18).
- Seidman, I.(2022).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5th ed).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박혜준, 이승연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19).
- Yin, R. K.(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6th). 신경식 외(역)(202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Abstract

An Exporation of Experience on Infringement of Childcare teacher' Teacher Rights and Improvement Suggestion

Choi, Yel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childcare teacher's infringement experience of right and improvement measure through a case study theory. For this end,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13 child care teachers who were 3 years worked in child care center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by Creswell & Poth(2018/2021).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of childcare teachers' infringement of teacher rights were divided into parents and childcare principal, fellow teachers and the media. When parents become the subject, childcare teachers experienced threats of declaration, down in self-esteem by verbal abuse and shouting, felling tired from endless work, inconvenience due to unwarrantable demands and intervention, and humiliation of being ignored. In addition, childcare teachers experienced demands and neglect from the childcare principal, unfair treatment, instructions and threats from fellow teachers, and misunderstanding and distrust of childcare teachers from the media. Second, the presented improvement suggestion about infringement of teacher rights by childcare teachers were raised parent education on respect for teacher rights, provision of protective measures, revision of guidelines and laws, and change in social awareness. These findings provide that the infringement of teacher rights of childcare teachers, it can be improved not only through institutional and legal responses, but also through parent education, improve the culture within the childcare and changes in social awareness.

Keywords : Childcare teachers, Teacher rights, Infringement of teacher rights, Improvement sugges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